

이 보고서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호리 (072770)

소프트웨어

요약

기업현황

시장동향

기술분석

재무분석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 성 기 관	NICE평가정보(주)	작 성 자	송승범 전문연구원
---------	-------------	-------	-----------

-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지원을 받아 한국IR협회의 기술 신용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 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4-685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울 호[072770]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가상화, 통합 클라우드 등 IT인프라의 편의성 제공

기업정보(2022/03/15 기준)

대표자	이정남
설립일자	1998년 3월
상장일자	2007년 7월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주요제품	무선인터넷플랫폼,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자문

■ 서버/스토리지 관련 컨설팅, 구축, 유지보수 등 종합 IT서비스 기업

울호(이하 '동사')는 1998년 설립된 서버 및 스토리지 시스템 구축, 가상화 솔루션 개발 등 IT 관련 제조 및 유통 업체로 200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 현재는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은 하고 있지 않으며, IT지원서비스 사업만을 영위하고 있다. 이에, 델 테크놀로지스와 전략 파트너 계약을 통한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공급하면서 국산 서버 및 스토리지 시장의 선두기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 서버, 스토리지 산업의 성장에 기반한 안정적인 매출 시현

서버, 스토리지 산업은 IT서비스를 위한 주요제품으로 SNS, 인터넷 서비스, 온라인 banking, 클라우드 서비스 등 업무 및 빅데이터 전산화에 필수 요소이다. 동사는 기업의 클라우드 활용 활성화와 금융 산업의 서버 투자 증가로 시장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상황에 따라 안정적인 매출을 시현하였다.

■ 디지털 뉴딜 정책, 디지털 전환을 위한 IT인프라 편의성 제공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재택근무가 늘어 VDI 도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으며, 디지털 뉴딜 정책,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등에 따라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인프라 확대가 예상되는 등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전통 금융권의 인터넷뱅킹 및 가상화폐거래소, 블록체인 분야의 신규 영업활동이 확인되며, 네이버, 카카오, NHN, MicroSoftware 등 국내 대형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라 데이터 저장장치 부분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동사는 델 테크놀로지의 제품을 활용한 IT인프라 구축에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

시세정보(2022/03/15 기준)

현재가(원)	1,990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1,037
발행주식수	52,119,867
52주 최고가(원)	4,320
52주 최저가(원)	1,435
외국인지분율	0.91%
주요주주	(주)태영이엔지홀딩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구분 년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18	552	(1.5)	7	1.3	(25)	(4.5)	(9.2)	(5.7)	71.3	-62	715	N/A	2
2019	637	-	16	2.5	(9)	(1.4)	-	-	148.0	-62	636	N/A	2
2020	832	30.5	15	1.9	11	1.3	4.6	1.7	120.2	30	685	47	2

기업경쟁력

ICT서비스 역량 보유

- IT기술지원 서비스업을 전문적으로 수행
 -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부문 사업 중단
- 서버/스토리지 솔루션, DB관리 솔루션, 빅데이터 관리 솔루션 공급
 - 디지털 혁신을 위한 필수 인프라 스트럭처 제공
 - 가상화 및 클라우드, 빅데이터 및 보안과 관련된 모든 솔루션 지원

핵심경쟁력

- 델 테크놀로지스 파트너
 - 서버/스토리지솔루션 전문 지원 티타늄 티어1 파트너
- 퀘스트소프트웨어 관련 10년 이상 경력의 전문가그룹
 - 제 1,2 금융권, 통신/유통, 제조, 공공 분야 별 메이저 업체 고객사 보유

핵심기술 및 취급 품목

핵심기술

- IT서비스
 - 맞춤형 국내외 기술 지원
 - 사전 장애 예방 및 신속 대응
 - 유지보수 서비스
- 서버/스토리지 기술지원서비스
 - 예방 정비 서비스, 장애 처리 서비스
 - T&M서비스,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주력 파트너 사

		
델 테크놀로지스	퀘스트소프트웨어	HPE MapR

ESG 현황

Environment

항목	현황
환경 정보 공개	■
환경 경영 조직 설치	■
환경 교육 수준	■
환경 성과 평가체계 구축	■
온실가스 배출	■
에너지, 용수 사용	田
신재생 에너지	■

田 : 양호 ■ : 미흡 □ : 확인불가

Social

항목	현황
인권보호 정책 보유	田
여성/기간제 근로자 근무	田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	田
공정거래/반부패 프로그램	田
소비자 안전 관련 인증	■
정보보호 안전 관련 인증	■
사회공헌 프로그램	■

田 : 양호 ■ : 미흡 □ : 확인불가

Governance

항목	현황
주주의결권 행사 지원제도	田
중장기 배당정책 보유	田
이사회 내 사외이사 보유	田
대표·이사회 독립성	田
감사위원회 운영	田
감사 업무 교육 실시	■
지배구조 정보 공개	田

田 : 양호 ■ : 미흡 □ : 확인불가

- 에너지, 용수 사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환경 경영 조직, 환경 교육, 환경 성과 평가체계 등은 미흡한 수준임.
- 동사는 약 30%의 여성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모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
-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이 약 28%로 이사회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이사회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본 ESG현황은 나이스평가정보㈜가 분석대상 기업으로 입수한 정보를 요약 정리한 것으로, 분석 시점 및 기업의 참여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I. 기업현황

IT인프라 구축에 대한 편의성을 제공하는 IT기술지원서비스 제공

동사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가상화 및 통합 클라우드 솔루션 운영을 위한 IT인프라의 모든 분야에 편의성을 제공하는 IT기술지원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동사는 텔 테크놀로지스, 퀘스트소프트웨어의 파트너로 클라우드 솔루션, 딥러닝 및 전용 SW 등을 위한 시스템구축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 개요

동사는 1998년 3월 3일에 설립되어, 2007년 7월 25일 코스닥증권시장에 상장하였다. 동사는 초기 EMC 솔루션, 산업용 자동화솔루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등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현재는 기개발된 솔루션에 대한 지원서비스 및 스토리지 서버, 컴퓨터 및 주변기기 유통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이에, 동사는 텔 테크놀로지스의 티타늄 티어1 파트너로 서버, 스토리지 등 텔 테크놀로지스의 제품을 고객에게 공급 및 구축하고 있으며, 대기업 제조사(전자), 반도체, 자동차, 게임, 인터넷 쇼핑몰, 금융사 등 다양한 산업군의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다. 한편, 2021년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동사의 본사는 서울 서초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전문경영인 이정남 대표이사 하에 총 2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 주요주주 및 계열회사 현황

2021년 3분기 보고서 기준, 동사의 최대주주는 태영이엔지홀딩스로 약 4.1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를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총 13.11%이다. 태영이엔지홀딩스는 특수관계인인 박정희가 지분 7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한편 동사는 가방, 의류 등의 제조/도소매 기업인 더스텔라의 지분 76.02%를 확보하여 지배하고 있으며, 그 하에 미니멈, 정호차이나를 계열사로 보유하고 있다. 더스텔라는 가방류, 스포츠백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9년 물적분할한 의류사업부문과 관련된 100% 자회사 미니멈을 설립하였다.

표 1. 주요주주(특수관계인) 및 계열회사 현황

주요주주	지분율(%)	계열회사	지분율(%)
태영이엔지홀딩스	4.11	더스텔라	76.02
박상배	0.26		
박혜선	0.37		
이미향	0.45	미니멈	-
기옥란	0.33		
박정희	3.68	정호차이나	-
이혜정	3.92		

*출처: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대표이사 정보 및 조직구성

이정남 대표이사는 2020년 12월 선임되어 현재까지 경영총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정남 대표이사는 호남대학교 교수로 광주광역시의원 부의장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동사의 경영진은 이정남 대표이사 포함 등기된 사내이사 5명과 사외이사 2명, 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직 구성은 대표이사의 경영총괄 아래 영업총괄 1개의 사업부와 경영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영지원팀은 5명의 직원이 감사업무지원 및 요청자료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림 1. 조직 구성



*출처: 동사 홈페이지(2022)

■ 주요제품 및 매출 현황

동사는 2019년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부문의 사업 중단에 따라 현재는 스토리지 솔루션 구축 및 소프트웨어 판매와 관련된 컴퓨터 주변기기 판매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동사의 취급제품으로 델 테크놀로지스의 솔루션과, 퀘스트소프트웨어의 솔루션, HPE(HP 엔터프라이즈)의 MapR 빅데이터 플랫폼이 있다. 동사는 델 테크놀로지스의 티타늄 파트너로서 고객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서버, 스토리지, 클라우드, 보안, 가상화 등 IT전반의 혁신 기술 및 제품군을 솔루션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한편, 동사가 제공하는 퀘스트소프트웨어의 솔루션은 기업의 IT관리에 소모되는 시간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로 운영 DB를 추출/적재하는 DB 복제 솔루션으로써 CDC(Change Data Capture)솔루션인 ShaprePlex 등의 제품군을 제공한다. SharePlex는 원본 DB(Database)의 성능과 가용성을 향상시키고, DB를 활용한 부하 분산업무 및 통합업무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오라클 기반의 데이터베이스관리, 데이터 보호,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 관리 등을 수행한다. MapR은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코어인 MapR-FS, MapR-DB, MapR Stream을 제공하며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 다양한 상용엔진, 어플리케이션과 에코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국가기관, 대기업, 금융기관에 적용되었다.



그림 2. 주요 제품 및 매출현황

(단위: 백만 원)

 <p>Dell Technologies</p> <p>클라우드 솔루션 구축을 아우르는 기술 파트너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p>	 <p>Quest</p> <p>딥러닝 및 전용 SW 기술에 대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p>	 <p>MapR</p> <p>IT, 정보통신용 전원공급 솔루션 구축을 아우르는 기술 파트너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p>
---	---	--

사업부문	제품	품목	2021. 3Q	2020	2019
컴퓨터 주변기기 판매	스토리지 솔루션 구축 및 소프트웨어 판매	EMC 솔루션과 소프트웨어	32,244	60,246	54,827

*출처: 동사 홈페이지(2022), 3분기보고서(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II. 시장 동향

COVID-19 이후에도 IT 산업 지속 성장 전망

동사는 텔 테크놀로지스 제품군의 구축 및 유지보수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IT인프라 구축 및 기술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동사의 기술 분야가 속한 국내 IT서비스 산업의 전반적인 특징과 동사가 공급하는 서버, 스토리지 시장 전망을 분석하고자 한다.

■ IT서비스 산업

IT서비스는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IT컨설팅 및 시스템 통합, IT시스템 관리 및 지원 서비스 등을 포함하며, IT서비스는 통상적으로 IT시스템 설계, 개발, 관리, 호스팅, IT지원 서비스 등을 의미한다. IT서비스는 크게 컨설팅 및 시스템 통합(Consulting/SI), 아웃소싱(Outsourcing), 지원 및 교육(Support and Training)의 3개 부문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계약 형태를 기준으로 6개의 중분류와 12개의 세부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2. IT서비스 분류

대분류	중분류	세부 시장 구분
컨설팅/ 시스템통합	IT컨설팅	IT컨설팅
	시스템 통합	시스템 통합
	애플리케이션 개발	네트워크 컨설팅 및 통합 사용자 애플리케이션 개발
아웃소싱	IS 아웃소싱	애플리케이션 관리
		정보시스템 아웃소싱
		네트워크 및 데스크탑 아웃소싱 서비스
		호스팅된 애플리케이션 관리 호스팅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
지원 및 교육	IT지원	HW 설치 및 지원 SW 설치 및 지원
	IT 교육 및 훈련	IT 교육 및 훈련

*출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2020),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국내 IT서비스 산업은 정부기관 및 기업 등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산업으로, 모든 경제분야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주요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IT서비스는 고급인력의 고용 창출 기여 효과가 높은 산업으로, 전통적인 산업에 비해 인력 자산에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다. 한편, 최근 서비스산업, 특히 유통업 분야에서의 혁신주체로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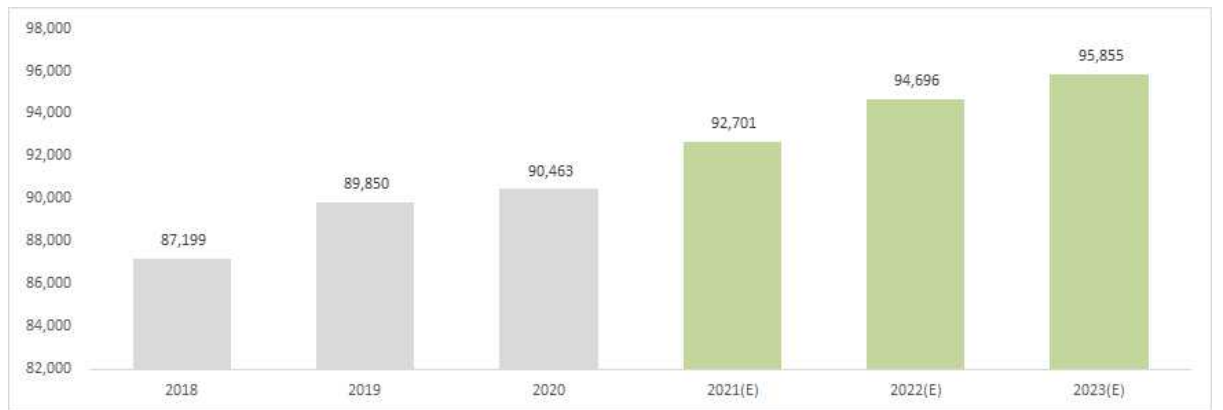
■ 국내 IT 시장 전망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2021) 따르면, 2021년 국내 IT서비스 시장은 일정 부문에 있어 COVID-19 이전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구체적으로 국내 IT서비스 시장규모는 2020년 9조 463억 원 시장규모에서 전년 대비 2.47% 성장한 약 9조 2,701억 원으로 전망하였다. 2021년에는 기업의 IT인프라에 대한 투자 회복으로 전반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기

업들의 디지털 전환의 추진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업종별, 기업 규모별로 양극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레거시 기반의 전통적인 IT 시장의 침체가 명확해지고 있으며, AI 및 빅데이터 등 신기술/플랫폼 중심으로 시장이 빠르게 재편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글로벌 기업들의 잇따른 국내 시장 진출과 이에 따른 신시장 분야의 경쟁이 한층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3. 국내 IT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 억 원)



*출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산업별 전망

국내 IT시장의 산업별 성장률은 금융 2.9%, 통신 1.9%, 제조 2.5%, 유통/수송 2%, 정부/공공 2.4%, 교육 1.3% 등으로 전반적으로 2020년 대비 2021년에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산업별 주요 IT 이슈로는 공공부분의 경우 디지털 뉴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대거 발주가 예상되며, 통신 분야는 스마트 시티, 그리드, 디지털 트윈 등 디지털시스템 구축에 따른 IT 접목 프로젝트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제조 분야는 대기업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금융 분야는 차세대 시스템 구축, 교육/유통분야에서는 비대면 서비스 확대에 따른 온라인 비즈니스 투자 확대 등이 예상된다.

그림 4. 국내 IT 시장, 산업별 전망

(단위: 억 원)



*출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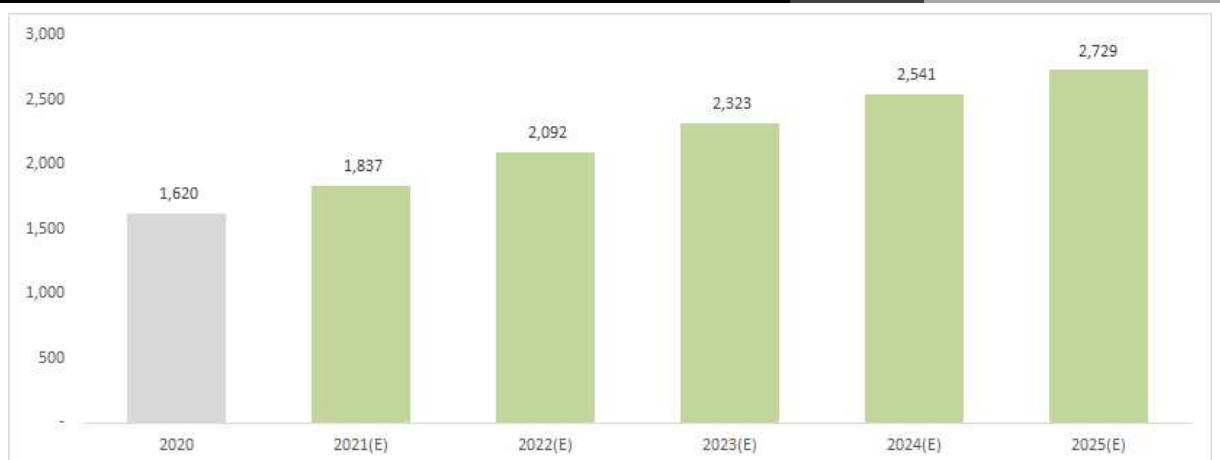
■ 서버 및 스토리지, 가상화 솔루션 시장

동사는 가상화 솔루션에 적용되는 서버 및 스토리지 솔루션 납품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이에, 가상화 솔루션 시장 및 서버, 스토리지시장이 목표시장이 될 수 있다.

하이퍼컨버지드(Hyper-Converged)시스템은 소프트웨어 기반의 스토리지(Storage), 네트워크, 가상화 솔루션 등을 활용하여 컴퓨팅 자원의 확장성과 운용성을 높이는 IT인프라 가상화 기술로 하이퍼컨버지드 인프라(Hyper-Converged Infrastructure)라고도 지칭된다. 하이퍼컨버지드 시스템은 가상화 솔루션인 하이퍼바이저(Hypervisor)를 통해 스토리지, 네트워킹, 컴퓨팅 환경 등을 구축하고, 하이퍼컨버지드 인프라 관리 소프트웨어로 전체 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를 제공한다.

그림 5. 국내 하이퍼컨버지드 시스템

(단위: 억 원)



*출처: 한국IDC(2021), 국내 하이퍼컨버지드 시스템 시장전망 보고서(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한국IDC의 2021년 국내 하이퍼컨버지드 시스템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하이퍼컨버지드 시스템 시장은 전년 대비 13.4% 성장하여 1,837억 원의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향후 5년간 연평균 11%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2025년 2,729억 원의 매출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한국IDC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국내 서버 시장은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CAGR) 8.1%을 가지며 2025년 2조 6,200억 원의 매출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되었으며, 국내 스토리지 시스템 시장은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CAGR) 2.3%를 통해 2025년 6,262억 원 매출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 되었다. COVID-19 팬데믹으로 기업이 생존을 위해 디지털 혁신을 확대함으로써 안정적인 비즈니스 운영을 위한 서버 및 클라우드 도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주요 데이터 관리를 위해 스토리지 시스템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유연하고 민첩한 IT 환경을 구현하며 비즈니스 혁신의 토대가 되는 국내 서버 시장의 성장이 전망되며, 기업의 디지털화 증가에 따른 데이터 관리 및 유지를 위한 스토리지 시장 역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Ⅲ. 기술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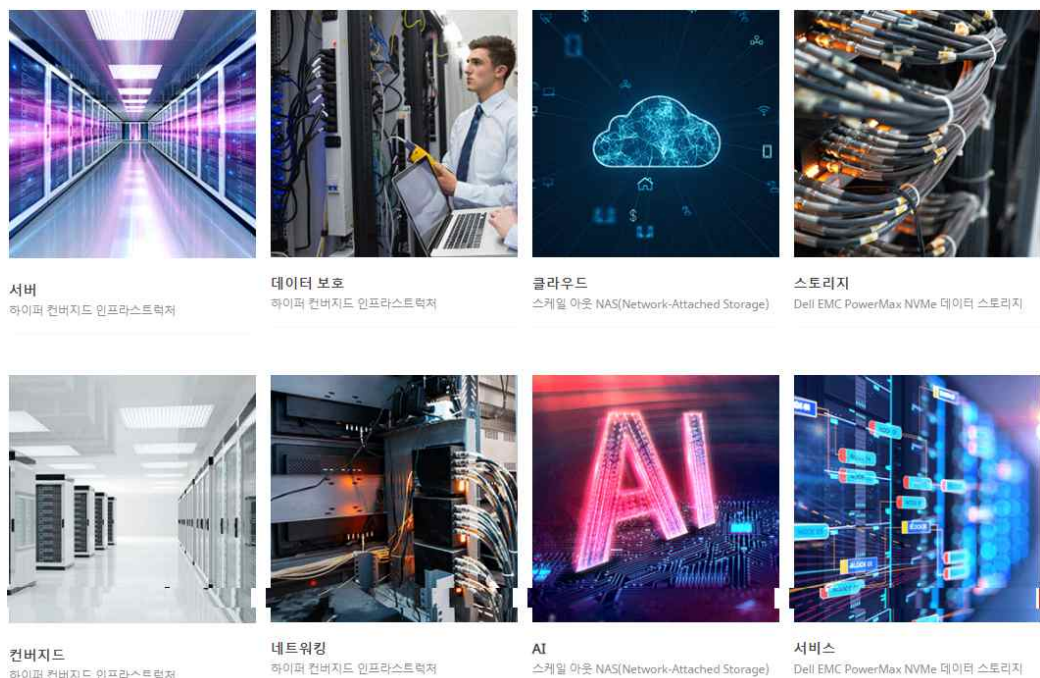
검증된 시스템을 통한 최적의 IT인프라 구축 및 운영 기술 확보

동사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가상화 사업에 대한 IT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 금융기관, 기업 등에 IT기술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델 테크놀로지스의 제품군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IT서비스 제공

과거 IT인프라 관리가 IT시스템 자체의 성능에 집중되었다면, 최근에는 IT시스템을 비즈니스와 연계해 관리/운영할 수 있는 비즈니스 관리 측면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에, IT시스템과 비즈니스 가치를 포괄하는 비(非)IT적 측면으로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IT솔루션이 개발되었으며, 이에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IT컨설팅 및 시스템 통합, IT시스템 관리 및 지원 서비스 등과 같은 정보통신 기술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IT서비스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기존의 IT관리가 시스템 자체의 기능 및 기술 사안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IT서비스 관리에서는 프로세스와 고객으로 초점을 맞춘 서비스 관리와 같은 개념이 핵심을 차지하고 있어 이러한 서비스를 적용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IT서비스 공급구조는 주계약자 중심으로 SI기업, SW 및 HW공급기업, IT컨설팅, 하도급 업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6. 동사가 취급하는 델 테크놀로지스의 제품 군



*출처: 동사 홈페이지(2022)

동사는 IT 정보화 사업 노하우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통합, 시스템 통합, 시스템 운영, IT 컨설팅 서비스 등 전반적인 IT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사는 델 테크놀로지스 제품군, 퀘스트 사의 소프트웨어 제품군 등에 대한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시스템 구축부터 무상보증기간에 속하는 장비와 만료된 장비의 예방정비 및 신속한 장애처리를 지원하는 등 기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사의 유지보수는 구축된 네트워크에 대한 사전점검, 수시점검, 정기점검 등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 지원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서비스를 통한 높은 품질의 고객 경험 제공을 포괄하고 있다.

그림 7. 동사의 IT기술지원서비스



*출처: 동사 홈페이지(2022)

▶▶ 예방 정비 서비스(Health Check Service)

Dell EMC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장비의 운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문 엔지니어가 고객사를 직접 방문 또는 원격을 통하여 장비의 점검 및 각종 스크립트 수행을 통해 현재 장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사전적, 선제적 점검 서비스로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 장애를 예방하는 서비스이다. 주기적인 장비점검을 통해 사전 대상 장비의 HW 및 SW에 대하여 정상적인 상태 확인과 파트 교체를 통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최신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다.

▶▶ 장애 처리 서비스(Break Fix Service)

Dell EMC의 장애 발생 시 전문 기술지원팀 투입 또는 델 테크놀로지스 본사를 통한 장애처리 지원을 제공한다. 시스템 로그 분석을 통하여 정확한 고장 부위 파악 및 장애 원인 분석에 따른 조치(파트교체, 패치적용 등)를 실시하는 등 신속한 정비를 지원한다.

▶▶ T&M서비스(비정규적인유상서비스)

일반 유지정비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또는 비정규적인 부가서비스(이전 설치, 정전 작업, 구성 변경, 호스트 연결, 성능분석, 재해 복구 테스트, 소프트웨어 재설치, 장비 초기화 재설치, 미 계약 장비 점검,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에 대하여 유상기술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작업 내용과 소요 시간에 따른 비용 등이 발생한다.

■ SWOT 분석

그림 8. 동사 SWOT 분석



*출처: NICE평가정보(주)

▶▶ (Strong Point) 오랜 사업 영위를 통해 축적된 기술 경험

동사는 델 테크놀로지스의 티타늄 파트너로 델 테크놀로지스의 다양한 고사양, 고품질의 제품을 국내에 안정적으로 공급 및 시스템을 구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사는 그동안 수행해 왔던 다양한 형태의 IT프로젝트를 통해 고객별 비즈니스에 적합한 IT컨설팅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설계와 통합 구축 및 전문적인 운영관리 서비스를 포함하는 최적화된 시스템과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이에, 20년 이상의 IT서비스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공공, 금융, 제조, 국방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 수행을 통해 안정적으로 매출을 실현하고 있다.

▶▶ (Weakness Point) IT인프라 개발 전문 고급인력 부족

IT기술지원서비스 위주의 사업 구조로 인해 연구개발 인프라가 미비한 것으로 파악되며, 업계를 선도할만한 전문 기술과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주요 사업의 특성으로 부가가치가 높지 않으며, 이에 따라 가격경쟁을 통한 사업수주 위주의 매출 실현 구조로 수익성이 높지 않다.

▶▶ (Opportunity Point) COVID-19로 인한 비대면 산업의 활성화

COVID-19로 인해 재택 및 원격 근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IT인프라 수요가 증가하면서 IT서비스 시장은 재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디지털 뉴딜 정책, 디지털 전환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동사는 경쟁업체 대비 IT시스템 구축의 연속성과 안정성에 있어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사업 파트너를 보유하고 있어 성장의 기회요인으로 판단된다.

▶▶ (Threat Point) 신규 업체 시장 진입으로 인한 경쟁심화

국내 다수의 기업들이 IT 기술력을 기반으로 스토리지 시스템 통합 등을 포함하는 IT서비스 시장에 진입하고 있으며, 세계선도 기업의 국내 진입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동사는 중장기적 영업 전략과 성장 경영 방침 및 사업 부문별 전문성을 기반으로 사업 역량 강화 등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IV. 재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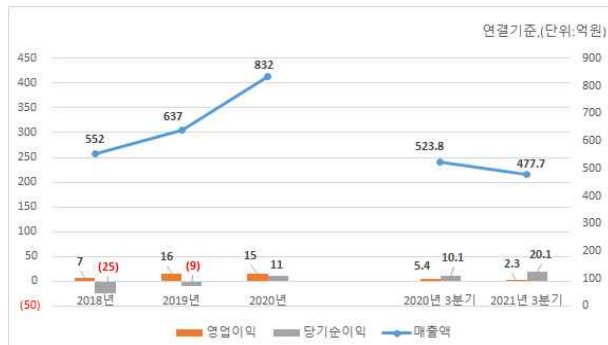
다소 부진한 실적 흐름 지속

동사는 COVID-19 수혜를 받아 2020년도 매출이 잠시 반등했으나 2021년 들어 다시 하락세로 전환되었으며 수익성 및 영업현금흐름도 여전히 저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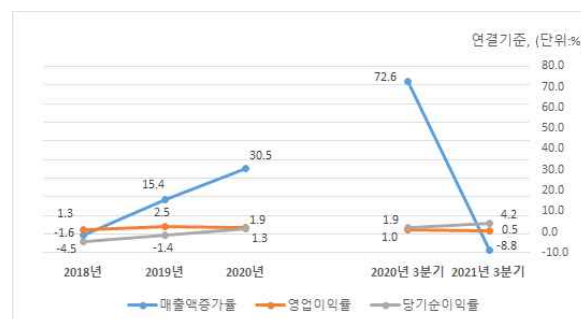
COVID-19 이후 매출 증가

동사는 2017년부터 3년간 매출 정체를 겪다가 2020년 결산기준 전년대비 30.5%로 크게 증가한 832억 원의 매출을 시현하였다. 주요 요인으로는 2019년 10월 인수한 가방 제조기업 더스텔라의 연결효과가 당기에 온전히 반영된 영향이다. 동사의 주력 사업인 IT 인프라 구축 부문의 매출액도 전년대비 9.9% 증가하며 COVID-19로 인한 수혜를 누렸다. 동사의 개별기준 매출액은 2020년도가 602억 원, 2019년도 548억 원, 2018년 552억 원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9. 동사 연간 및 3분기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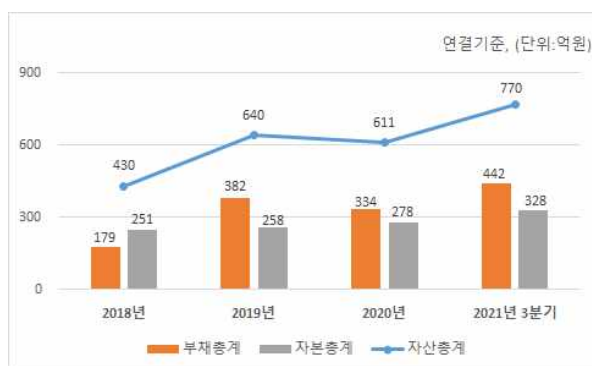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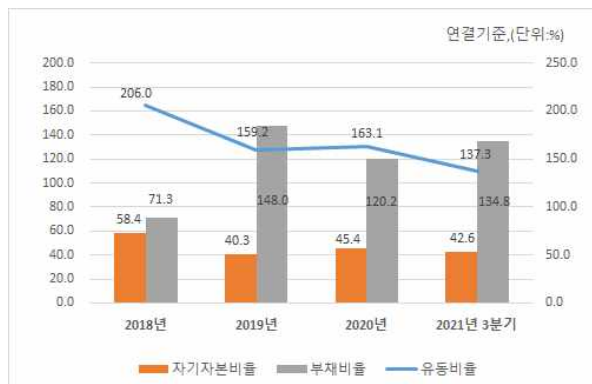
증가율/이익률 추이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 3분기보고서(2021)

그림 10. 동사 연간 및 3분기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부채총계/자본총계/자산총계 추이



유동비율/자기자본비율/부채비율 추이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 3분기보고서(2021)

■ 업계 대비 낮은 수익성 지속

한편, 안정적 거래선 바탕으로 매출이 꾸준한 반면 사업의 수익성은 높지 않다. 최근 3개년 연결기준 평균 매출원가율은 82.4% 수준으로 NICE 산업평균인 79.6%를 초과하고 있다. 더불어 수수료비용 증가 등에 따른 판관비 부담 확대로 인해 2020년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전년대비 저하된 1.9%,를 기록했다.

중속기업 더스텔라의 낮은 수익성을 배제하고 살펴본 동사의 최근 3개년 개별기준 매출액영업이익률 역시 1-2%대 수준으로 NICE 산업평균인 4.1%를 하회하고 있다. EBITDA 대 매출액 비율 역시 3.3%로 산업평균인 5.7%에 미달했다.

■ 2021년 실적은 다시 하락세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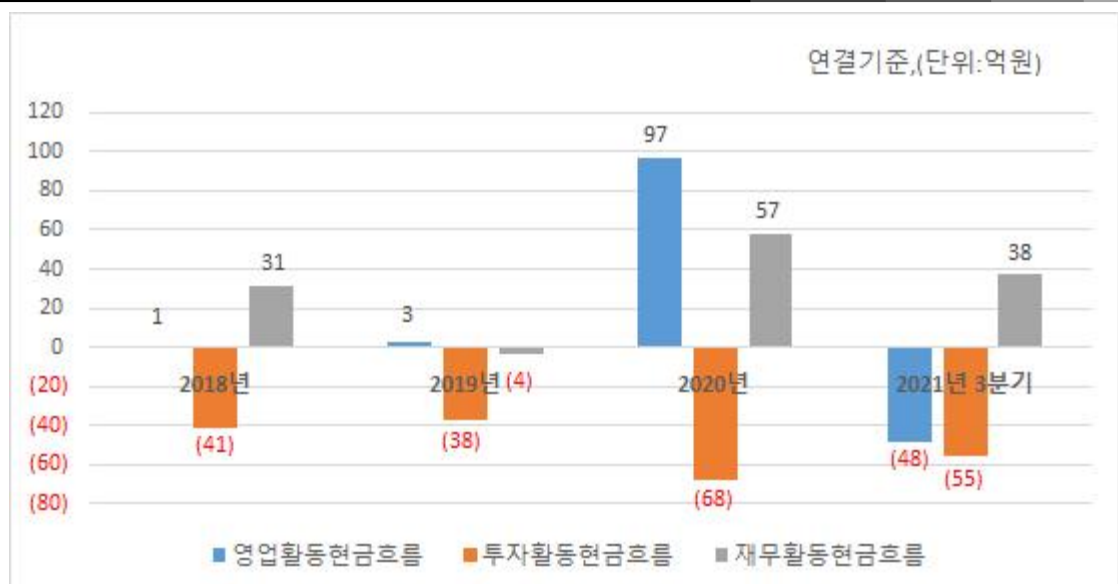
2021년 3분기 매출액은 478억 원(-8.8% YoY)으로 다시했다. 매출 감소에 따른 고정비 부담 확대와 판관비 증가로 인해 매출액영업이익률은 0.5%로 더욱 하락했다. 한편 관계기업투자이익 발생으로 인해 분기순이익은 20억 원을 기록했다.

2021년 3분기 말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134.8%, 자기자본비율 42.6%, 유동비율 137.3%, 차입금의존도 18.9%를 기록하였다. 영업 규모 대비 상거래로 인한 매입채무와 금융부채 비중이 크지 않은 편이며 동종업계와 비교한 재무안정성 비율 역시 무난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부진한 영업현금흐름 지속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18년이 1억 원, 2019년 3억 원, 2020년 97억 원, 2021년 3분기 -48억 원으로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속기업 지분 취득 및 임직원 자금대여, 금융자산 취득과 같은 투자활동에 자금 소요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필요자금은 주로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11. 동사 현금흐름의 변화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 3분기보고서(2021)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디지털 뉴딜 정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최전방 기업

AI, 빅데이터 등 첨단 IT 기술 산업의 발전, 다양한 산업 분야의 ICT 기술을 활용, 디지털 뉴딜정책, 비대면 산업의 급격한 성장 및 재택근무 확대 등 IT인프라 구축 및 유지관리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주요 정책 이슈

2019년 이후 COVID-19는 현재까지 다양한 형태로 변종되어 거듭 강한 확산세를 보이며 경기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위기극복과 미래대응을 목표로 D(Data).N(Network).A(AI) 기반의 디지털 뉴딜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D.N.A 생태계 강화,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로 구성된 4대 분야 및 하위 12개 추진과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디지털 뉴딜 사업에 있어 데이터의 수집, 축적 및 가공, 데이터 활용, 데이터 및 AI인프라 확충 등과 연관이 높은 데이터댐 사업의 경우 2025년까지 총 18조 1,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공공 부문의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클라우드 산업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공공 부문에 대한 클라우드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 동사의 네트워크 통합 및 시스템 통합 사업은 가장 기초적인 IT인프라 구축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클라우드 및 데이터 센터 사업은 디지털 전환과 더불어 AI, 빅데이터 산업의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로 디지털 뉴딜 사업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2. 디지털 뉴딜 1.0과 2.0

	뉴딜 1.0	→	뉴딜 2.0
D.N.A 생태계 강화	< D.N.A 기반 조성을 넘어, 초산업·국토에의 D.N.A 활용 가속화 >		
	· 대규모 데이터 댐 구축 * AI 학습용데이터(4.8억건) 구축 등		· 데이터 댐 전주기 활용 강화 * 데이터댐 활용·가명정보 결합 강화
	· 5G 등 네트워크 기반 구축 * 5G 국가망 구축, 5G MEC 선도사업 등		· 5G 특화망 등을 통해 산업 융합 강화 * 5G 융합서비스특화망 활용 강화
	· AI 활용 기반 구축 * AI+X7대융합프로젝트, AI윤리기준 마련 등		· AI 활용을 산업지역 전반으로 확산 * 지역주력산업 AI 연계 대형 선도사업 추진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별 디지털 혁신 사례 확산 >		
	·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 초·중고 WiFi 구축, K-에듀 통합 플랫폼 등		· 디지털 교육 인프라 강화 * 초·중고 WiFi 조기 구축(22년→'21년) 비대면 AI 교육콘텐츠 제작·활용 등
	· 스마트 의료 기반 조성 * 스마트 병원 데이터센터 10개(8개질화) 등		· 스마트 의료 성과 확산 * 스마트 병원 데이터센터의 전자영문로별 확산
	· 중소·소상공인 비대면 전환 지원 * 스마트상점~10만개, 25, 스마트공방 등		· 중소·소상공인 지원 내실화 * AIoT 기반 스마트상점 질적 고도화 등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21.07),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범산업적으로 이루어지는 디지털 포메이션

IT 기술의 발전과 4차산업 혁명으로 산업 전반에서 디지털화가 이루어져 왔으며 COVID-19는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세를 더욱 가속화하는 트리거가 되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디지털 패러다임으로 생겨난 다양한 변화로 디지털에 기반하여 기업의 전략, 조직, 프로세스, 비즈니스모델, 문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혁신적인 발전이 가능하게 하는 경영전략이다. 1990년대 말, 디지털인프라 구축이 시작되었으며 2000년대 초, 인터넷의 대중화에 따라 e-커머스 및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생겨났다. 이후 2010년 초, 모바일, IoT, AI 등의 기술 발전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전반적인 경영전략에 대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요소 기술로는 AI, Cloud, 빅데이터,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로봇틱스 등이 있으며 다수의 기업이 기술 트렌드를 적용한 IT인프라를 구축하고 변화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IT인프라 구축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사의 IT기술지원서비스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6개월 이내 발간 보고서 없음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출처: Kisvalue(2022.03)